

제3회 혼불학생문학상

혼불학생문학상은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꼽히는 소설 「혼불」과 작가 최명희(1947-1998)를 추모하며, 동시에 「혼불」을 통해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. 최명희의 삶과 문학 열정을 확산시킴으로서 문학의 고장인 전라북도의 자부심을 높이며, 청소년들에게 글의 가치와 바른 글쓰기를 스스로 일깨우고자 합니다. 혼불학생문학상은 새만금·사투리·동학·전주한옥마을 등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콘텐츠를 매년 글쓰기의 주제로 설정해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● 주제: ‘전라북도의 사랑이야기’

- 성춘향과 이몽룡, 매창과 유희경, 매창과 허균, 신재효와 진채선, 동정부부 요안과 루갈다, 나무꾼과 선녀, 김삼의당과 하립 등 전라북도에서 전해지는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함.
- 전라북도의 다양한 사랑이야기를 소개하거나 자신만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다시 창작하거나 특정 부분을 떼어내 재구성하는 등 자유롭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됨.

● 형식: 산문(수필·소설·희곡·취재기 등)

● 분량: A4용지 3장(200자 원고지 20매 정도)

● 대상: 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

● 일정: 5월 1일 - 7월 31일(결과발표 8월 말 / 시상식: 10월 10일)


● 접수: 이메일 접수(jeonjuhonbul@nate.com) 및 방문(최명희문학관) 접수

- 작품제목과 학교, 학년, 연락처, 주소 등을 반드시 글의 표지에 작성.
- 지도교사가 있을 경우는 함께 표기해야 함.

● 시상내역 : 총 상금규모 1,100만원/ 학생 48명, 교사 5명

| 상명 | 숫자 | 시상내역 | 상격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대상 | 1명 | 상장, 상금 200만원 | 전라북도교육감상 |
| 차상 | 2명 | 상장, 상금 100만원 | 전라북도교육감상 |
| 차하 | 5명 | 상장, 상금 30만원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| 가작 | 10명 | 상장, 상금 15만원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| 장려 | 30명 | 상장, 상금 10만원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| 지도교사상 | 5명 | 상품(20만원 상당)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
▪ 주 최 전주문화방송

▪ 주 관  전주시립도서관 · 최명희문화관

▪ 후 원  전라북도교육청
Chollabuk-do Office of Education

제3회 호불학생문학상

- 주 제 : 전라북도의 사랑이야기
- 형 식 : 산문(수필·소설·희곡·취재기 등)
- 분 량 : A4용지 2~3장(200자 원고지 20매 정도)
- 대 상 : 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
- 접 수 : 2013년 5월 1일 ~ 7월 31일(결과발표:8월 말 / 시상식:10월 10일 예정)
이메일 접수(jeonjuhonbul@nate.com) 및 방문(최명희문화관 T.063.284.0570)접수
· 작품제목과 학교·학년·연락처·주소 등을 반드시 글의 표지에 작성하세요
· 지도교사가 있을 경우는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접수처 : 최명희문화관 (560-0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-5번지 혼불학생문학상 담당자 앞)
- 시상내역 (총 상금규모: 1,100만원 / 학생 48명, 교사 5명)

| 상명 | 숫자 | 시상내역 | 비 고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대상 | 1명 | 상장, 상금 200만원 | 전라북도교육감상 |
| 차상 | 2명 | 상장, 상금 100만원 | 전라북도교육감상 |
| 차하 | 5명 | 상장, 상금 30만원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| 가작 | 10명 | 상장, 상금 15만원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| 장려 | 30명 | 상장, 상금 10만원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| 지도교사상 | 5명 | 상품 (20만원 상당) | 전주문화방송사장상 |

세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의 삶에는 세상을 담아내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. 그들은 삶의 터전인 세상을 보다 진솔하게 읽어내는 감수성을 갖추면서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먼저 갖춰야 할 덕목도 이 맥락에서 찾아집니다.

혼불학생문학상은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소설『혼불』을 통해 보국어의 아름다움을 널리 확산시키고 작가 최명희(1947~1998)의 삶과 문학 열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. 이룰 봉에 문학의 고장인 전라북도의 자부심을 높이고, 청소년들이 글의 가치와 바른 글쓰기를 스스로 일깨우기를 바랍니다.

전북 지역 소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혼불학생문학상은 '새만금'(2011)과 '전라도 사투리'(2012) 등 매년 전라북도 문화콘텐츠클럽을 주제로 합니다. 올해는 '전라북도의 사랑이야기'입니다. 성춘향과 이몽룡, 이매창과 유취경, 이매창과 허균, 신재효와 진채선, 동정부부 요안과 루길다, 나무꾼과 선녀, 김삼의당과 하림 등 전라북도에서 전해지는 사랑이야기가 올해의 테마입니다. 전라북도의 다양한 사랑이야기를 소개하거나 자신만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다시 창작하거나 특정 부분을 떼어내 재구성하는 등 자유롭게 스토리텔링하면 됩니다. 여러분의 독특한 발상과 아주 특별한 상상력을 기대합니다.